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1호 [루게 제 24989호] 주제 104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를 지도하시였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영원한 전승의 날인 7.27을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시위하는 혁명적명절로 성대히 경축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가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개진확장된 갈마비행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를 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서홍찬동지, 조경철동지, 김영철동지, 오금철동지, 리용주동지, 최영호동지, 김락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모범적인 전투비행사들과 갈마비행장개건확장공사에 동원되였던 군인건설자들이 경기를 함께 보았다.

경기대회가 진행되는 갈마비행장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있었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성취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훈연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만들자!》, 《모두다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전법에 정통하자!》, 《선군태양을 옹위하는 은빛날개가 되자!》, 《선군조선의 푸른 하늘을 철벽으로 지키는 성새, 방패가 되자!》라는 구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라는 글발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오전 8시 30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신 전용기 《침매-1》 호기가 갈마비행장공기를 날으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구분대들에 대한 시열비행을 하였으며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전용기가 착륙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올라 하늘명을 진감하였다.

오늘의 이 영광의 시각을 위하여 갈마비행장개건확장공사의 나날을 로력적위훈으로 빛내여온 군인건설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겨워 가슴을 들먹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고 또 올렸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의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용기에서 내리시어 명예위병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를 시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석단감시대에 오르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조선인민

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모범적인 전투비행사들과 갈마비행장개건확장공사에 동원되였던 군인건설자들에게 손저어답례를 보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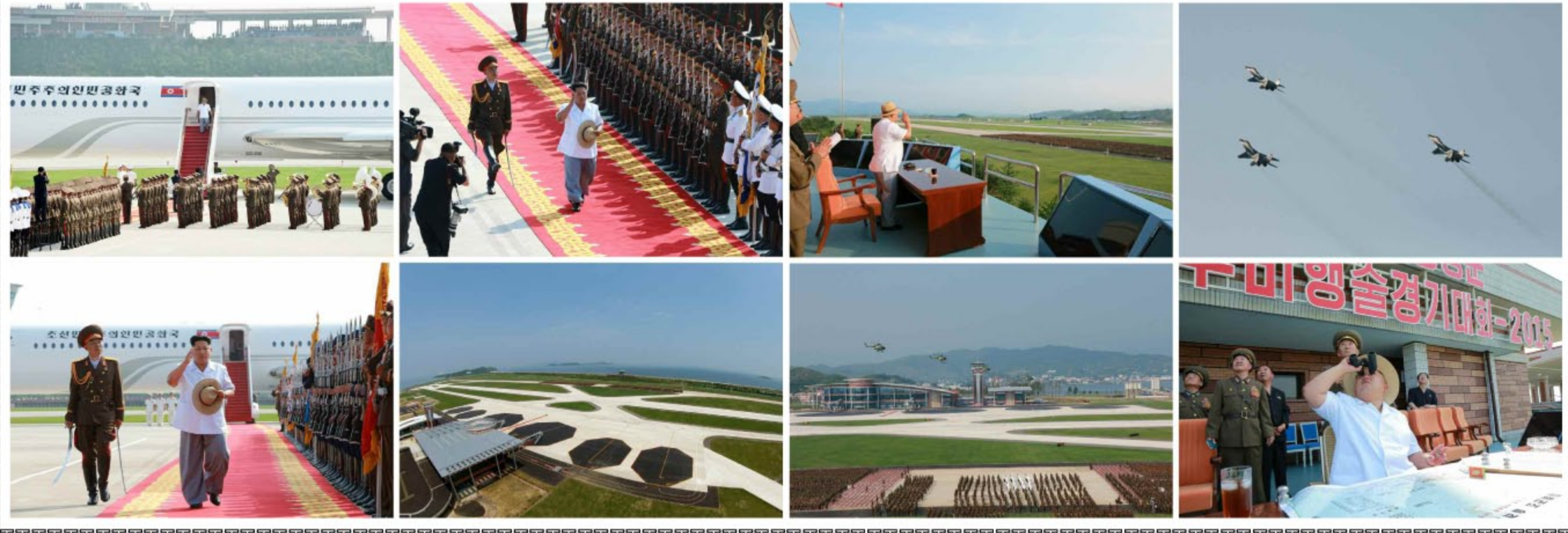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육군 대장 리영길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주체적항공무력의 70년 력사에서 두번째로 열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는 훈연혁명의 불길속에서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높은 비행술을 소유한 일당백의 만능비행사들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에 따라 진행되는 뜻깊은 훈연경기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군 제5차 훈연인민군대회에서 훈연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만들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전군의 장병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세상에 내놓고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훌륭히 개진확장된 이곳 갈마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를 진행할것을 맡기하시고 여러차례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경기대회조직과 준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를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독특한 내용과 형식으로 전례없는 규모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대회는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을 당의 군사전략전술 사상과 영웅적투쟁정신, 완벽한 비행술과 실전능력을 소유한 김정은빨찌산의 붉은 비행대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키며 전군의 장병들을 당의 훈련혁명방침 관철에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그는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이번 경기대회를 조직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경기에 높은 정치적열의를 안고 참가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의 개막을 선포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장중한 주악에 이어 조선인민군 종합군악대의 군악제식과 연주회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적의 기상을 안고 비행기에 오르는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에게 출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지휘관조와 부대조로 나누어 진행된 경기대회가 시작되자 장쾌한 폭음이 울리는 속에 시뻘건 불줄기가 내뿜치며 은빛매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날아올랐다.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이번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통하여 태양의 성산



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데에 항공군안의 모든 비행부대들이 참가한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성대히 진행한것은 천만대적도 발아래로 굽어보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응단이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정의 장쾌한 승리라라고 말하였다.

그는 경기에 참가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자신들의 견결한 전투정신과 실전능력을 겸열받는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꾸준히 련마한 비행술을 잘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경기대회성적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우승을 쟁취한 성원들과 단위에 시상하였으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의 폐막발언을 끝으로 경기대회가 끝났다.

세계전쟁사에서 처음으로 남강도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백두산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신앙으로 다진 맹세를 어떻게 실천해왔는가를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겸열받는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습격비행과 초저공비행, 특수기교비행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중전투비행동작들을 능숙히 수행하면서 정시에 편마한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기에 참가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저저마다 자기들의 특수기교비행술을 선보이며 정확하고 숨씨있게 리착륙을 진행할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렬한 축하의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의 치렬하고 열띤 비행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술이 높지 못하면 용감하고싶어도 용감할수 없고 위훈을 세우고싶어도 세울수 없다고 하시면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당의 훈련중시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과 인민,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훈련전선에 산악같이 떨치나 실전능력과 지휘능력, 비행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가지 훈련경기들을 많이 조직하고 경기관청과 총화를 공청하면서도 엄격하게 진행하여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의 경쟁열, 훈련열을 최대한로 폭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오전, 오후경기성적이 종합되고 등수가 결정되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시상식발언을 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하는 남강도 미제와 남조선 피뢰역적패당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모략과 남조, 무모한 침략책동으로 하여 6.25전야와 같은 일촉즉발의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5》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 반미대결전의 년대마다에서 공중비적들을 통쾌하게 타승한 고귀한 승리의 전통을 이어 자주적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해치려려고 우리의 정의로운 전군을 가로막아보려는 침략자들에게 우리 식의 비행전법으로 무자비한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붓고야말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열적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된다.

전체 참가자들은 《훈련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만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속에 훈련의 집을 결정적으로 높여 그 어떤 전투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펄펄 나는 백두산호방이로, 통일대전의 영웅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앞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리을설동지, 황순희동지, 김철만동지, 박경숙동지, 리영숙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최영립동지, 태종수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여 한생 잊지 못할 사랑의 축하연설을 받아안은데 이어 편일 배풀어지는 대해같은 은정속에 또다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로병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전국로병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빛내이시며 주체조선의 위대한 새 승리를 펼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리쳐올리었다.

로병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고 오늘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전우들을 60여년세월 지나거나 마음속으로 그리워 잊지 못해한 로병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어 려사묘앞에서 려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랑의 기념사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로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리쳐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로병들이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서 후대들에게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남겨주어 그들을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로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승리의 려사와 전통을 아로세겨온 전승세대의 긍지를 가슴가득 안겨주시었으며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자기들을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과 기상, 투쟁본태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인생애를 빛내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사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여성들의 혁명적기상을 높이 떨치자

오늘은 우리 조선여성들에게 있어 서 매우 의미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69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녀평등권 법명을 발표하신것은 오랜 세월 온갖 정치적우편리와 사회적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우리 여성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거대한 정치적사건이었다. 력사의 이날이 있어 우리 여성들은 남사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나서게 되었으며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올수 있었다.

지금 온 나라의 전체 여성들은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 남녀평등의 새시대를 펼쳐시고 독창적인 사상과 명도로 조선여성들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여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감사를 드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적진보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가진다. 여성들의 역할이 사회의 활력이고 혁명과 건설의 힘찬 전진이다.

우리 여성들이 걸어온 근 70년의 력사는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를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력량으로 자방멸치는 전투적로병으로 빛나고 있다.

해방후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실현하시는 속에서도 조선민주녀성동맹을 부어주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법명을 발표하시어 우리 여성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과 참다운 삶의 권리를 안겨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우리 여성들에게 가장 훌륭한 사회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명도의 손길이 뜨겁게 닿아있

으며 우리 여성들에 대한 수령님의 어머니사랑과 하늘같은 은덕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머니수령님의 뜻대로 여성들을 위대한 혁명대로 중시하시고 적국 내세워주시었으며 수령님께서 여성운동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는데 언제나 큰 힘을 기울여 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사상과 정신, 투쟁기풍을 담은 신군시대의 여성혁명가들로 역사에 키우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참된 애국여성들로 온 나라에 내세우시기 위하여 길고길은 신군장정의 길, 현지도강행군같이 그 얼마인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주체적녀성운동이 걸어진 자랑스러운 력사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여성정치, 여성존중의 빛나는 력사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명도와 은혜로운 보살핌속에서 항일의 녀류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이어받은 우리 여성들은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물론 혁명의 년대들마다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며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수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지쳐올린 권리와대고조의 거대한 불길에도 우리 여성들의 열렬한 애국심이 깃들어있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며 세기적비약을 이룩해온 조국전쟁의 갈피에도 여성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새겨져있다. 류폐없이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험악한 폭풍과 거센 파도를 뚫고 우리 여성들처럼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 보람찬 혁명의 길, 민족적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자랑한 위훈을 수놓아온 여성들은 세상이었다.

오늘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기개와 전투적위력은 더욱 힘있게 파시되고 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는 당의 명도밑에 여성존중, 여성중시의 새 력사와 창조적능력이 최대로 발양되는 긍지높은 년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우리 여성들을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키워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고있다.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새로운 삶을 꽃피워가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고 집단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여성들이 있기에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 위업은 력사의 온갖 시련속에서도 승승장구해나가고있다.

우리 여성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호위전의 열혈투사들이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호위전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제일생명으로 되고있다. 이 성스럽고도 영예로운 투쟁에서 우리 여성들도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 당정책을 받드는 여성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고결하다.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명도업적을 빛내이고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전심을 바쳐가는 여성들을 볼수 있다. 그들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물러설 길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고심어린 탐구의 길을 걸으며 첨단수준의 생물농약 연구개발과 과학자도 있고 당의 뜻을 받들어 심심산중의 발전소건설장과 외진 섬초소의 학교들로 만원해나간 처녀들도 있다. 남바다우에서 단신의 배고픔소리를 높이 울려가는 여성으로공공과 낮에 밤을 이어 혼연의 구슬땀을 흘려가는 녀성체육인들,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 녀맹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있는것이 바로 당정책결사관철의 일념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지닌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이 수령이 열여준

길을 따라 드림없이 전진하고 우리 당의 결심이 빛나게 관철되고있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당의 선군정치를 한 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견결한 혁명가들이다.

신군은 우리 당의 혁명로선이고 정치방식이다. 우리 여성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선군의 길에서만 가정의 행복도, 후대들의 밝은 웃음도 지켜주고 꽃피울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지금 우리 여성들은 총대중시, 군사선행이 국사중의 국사라는 확고한 관념을 지니고 당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다. 총잡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부수수들인 군관안대들의 애국헌신의 기풍은 사회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귀중한 청춘시절을 총과 함께 조국보위의 길에서 빛내여가고 병사들의 친누이, 친어머니가 되어 원군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것이 선군조선의 여성들의 모습이다. 여성들속에서 남자들도 타기 힘든 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배출된것은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여성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서 이르렀는가를 뚜렷이 실증해 주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적 정책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지만 우리 조국은 끄떡없다. 이 세상 끝까지 당의 선군명도를 따르며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 여성들은 사회주의대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미풍의 창조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이다. 생활의 꽃, 나라의 꽃, 이 부름에는 가정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가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며 근면한 여성들이 있어 새로운 맹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있는것이 바로 당정책결사관철의 일념이다. 어렵고 힘든 때 절대적인 충성을 지닌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이 수령이 열여준

집단의 화목을 꽃피워나가는 정신력의 강자들이 우리 여성들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혁명동지들을 위하여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치고 전진로병들과 영애군인들을 따듯이 돌보며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얼굴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8년세월 사망과 정성을 기울이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처녀어머니》가 되는것과 같은 미덕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오늘 가정과 일터마다에서 《우리 집사람》과 같은 노래들이 높이 울려 퍼지고있는것은 우리 여성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의 분출이다. 가정과 사회, 집단을 위한 헌신을 더없는 보람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훌륭한 애국헌신의 기풍은 사회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귀중한 청춘시절을 총과 함께 조국보위의 길에서 빛내여가고 병사들의 친누이, 친어머니가 되어 원군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것이 선군조선의 여성들의 모습이다. 여성들속에서 남자들도 타기 힘든 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배출된것은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여성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서 이르렀는가를 뚜렷이 실증해 주고있다.

모든 여성들은 당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감수할것이 새기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높은 혁명성과 불타는 애국심,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해나가기 위하여

우리 여성들의 자주적존엄과 권리, 값높은 삶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한다.

전체 여성들은 오랜 세월 한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날수 없었던 우리 여성들을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력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키워내고 내세워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에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명생의 대기념비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업적

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광심과 티없이 깨끗한 지성을 바쳐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일련단심 자기 명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조선여성들의 혁명적정도를 힘있게 파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고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모든 여성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의 참다운 귀감을 뼈에 새기고 실천투쟁에서 적극 구현해나가기 한다.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선군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갈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야 하며 일수일기에서 주신 과업들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완수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시대를 격동시키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기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로 《세기와 더불어》에서 안영애, 조옥심장같이 새기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높은 혁명성과 불타는 애국심,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해나가기 위하여

우리 여성들의 자주적존엄과 권리, 값높은 삶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한다.

전체 여성들은 오랜 세월 한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날수 없었던 우리 여성들을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력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키워내고 내세워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에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명생의 대기념비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업적

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광심과 티없이 깨끗한 지성을 바쳐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일련단심 자기 명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조선여성들의 혁명적정도를 힘있게 파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고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모든 여성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의 참다운 귀감을 뼈에 새기고 실천투쟁에서 적극 구현해나가기 한다.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선군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갈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야 하며 일수일기에서 주신 과업들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완수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시대를 격동시키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기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로 《세기와 더불어》에서 안영애, 조옥심장같이 새기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높은 혁명성과 불타는 애국심,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해나가기 위하여

우리 여성들의 자주적존엄과 권리, 값높은 삶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한다.

전체 여성들은 오랜 세월 한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날수 없었던 우리 여성들을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력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키워내고 내세워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에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명생의 대기념비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업적

영원한 메아리

작사 리혜정
작곡 함혁

의지를 담아 (♩=87)



1. 조용히 걸음 멈추고서 - 가슴에뜨 겁게 안아보네 -



조국의 푸른 밀립속에 - 소중히새 거진 글발 이어 - 죽어도



혁명신념 - 버리지 말라 - 투사들 그목소리 - 메아리 쳐 와



혈전의언 덕에 세워주네 - 우리의 마음을

- 2. 세월의 모진 눈미마저 지울수 없었던 이 글발은
빨치산들의 당부되어 심장의 박동을 더해주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불굴의 이 신념 가슴에 안고
언제나 한길을 걸으리라 오늘도 매일도

- 3. 행복의 길을 걸을 때도 시련의 준명을 넘을 때도
우리 가슴에 울리리라 영원한 신념의 메아리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위대한 그 정신을 길이 빛내며
끝까지 혁명에 충실하리 우리 당 받들어

불멸의 항일혁명업적 만대에 빛내여가리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행군 활발히 진행

조국해방 일흔년을 맞으며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열어 놓으신 항일의 전구들을 찾는 답사행군대원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 이끌어들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군사의 영재이다.》

보통보통투쟁기처럼 높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린 답사자들은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의 길로 조직적으로 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품어키고 있다.

보통보통투쟁기를 참관하고 보통보통투쟁기처럼, 우전군, 민사무소, 소방회관, 경찰관주재소 등을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천재적인 군사적지리와 지략으로 강도 일제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고 조국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겨 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조국에 진출하신 역사의 지점들인 청봉, 건창, 배계봉성영지에서 답사자들은 구호나무들에 새겨진 글발들을 보면서 살아도 죽어도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이 아깝없이 바친 항일혁명전열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심장에 깊이 간직하였다.

진민항쟁을 위한 핵심육성기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한 근거지였으며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시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의 집결처였던 간백산일영을 찾은 답사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을 조국해방을 위한 전진항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의 영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였다.

풍경에도 그리던 혁명의 성지 백두산일영고향집을 돌아온 답사자들은 백두광명성산성으로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며 끝없는 환희에 휩싸여오던 항일혁명투사들의 모습이 어려와 뜨거운 격정을 감지 못해 하였다.

이어 답사자들은 사령부기둥집의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항일의 전구마다에서 답사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단련을 해치며 세워 올린 항일혁명전열들의 강철의 기개는 혁명적신념에서 우러나오는것을 깊이 체득하였다. 각지의 당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동맹원들을 비롯한

답사자들은 백두일영에서 천막을 치고 숙영을 하면서 항일혁명투사들의 열의같은 조국애와 혁명적투쟁정신을 후대에게 새겨안았다.

조국해방 일흔년을 앞두고 백두산에 오르는 답사자들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새!》를 휘날리며 목청껏 《한새!》를 불렀다.

강사의 해설을 통하여 답사자들은 지난 4월 경에 하신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원들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안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우나가자고 하신 호소를 심장에 새기었다.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인 백두산에서 답사자들은 장편시사시 《백두산》방송모임과 혁명요합창경연을 진행하였다. 시방송모임을 통하여 그들은 신승을 향한 진심으로 포악무도한 강도 일제를 처부리고 조국을 찾아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업적을 소리높이 격찬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찾아가고 있다.

들끓는 언제건설장에 야전지휘소를 정하고

건설전재공업성 책임일군들

백두산신군청년 1호발전소 2중이치형 기본연제가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기세등々 치솟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한 관심을 받으며 새 건설전재공업성에서 여러 시공단위들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지난 6월 상순부터 당앞에 걸다진 하루 1 000㎡의 연제콘크리트타입공사를 돌고라하였다. 7월에 들어와서는 일평균 1 120㎡이상, 최고 1 560㎡의 타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연제중심부의 3개 블로크를 자기 높이에 완전히 올려세우는 건설장면에 승리의 신심을 백배해 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승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승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지난 4월 말 건설전재공업성 내내 성의 책임일군들은 기본연제건설을 맡은 성의 건설사업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데 큰 힘을 들이었다. 당장 건설 일흔돌까지 1호연제를 완공하자면 하루 1 000㎡의 콘크리트타입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결정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였다.

현실속에서 걸린 문제점을 찾아낸 책임일군은 즉시 성으로 올라와 긴급회의를 조직하였다. 부족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과 성의 건설사업소들에서 유능한 기능공들을 선발하여 보내기 위한 실무적조치를 취해졌다.

회의의 결이 있던 후 성의 당 책임일군이 직접 연제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화물자동차들과 기중기차대들을 인출하여 발전소건설장에 찾았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부령수력발전 건설사업소, 청진금속건설 변환기업소, 함흥산업건설사업소, 금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등 성의 건설사업소들에서 선발된 유능한 기능공들이 련이어 현지에도 도착하였다.

성의 책임일군이 5월 중순부터 직접 발전소건설현장에 자기의 전투과제를 정하였다. 하루엔제타입을 끌어올리기 위한 첫 목표로 선별공정의 열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결정되었다.

성책임일군은 선별공정의

요소요소를 직접 밟아보며 사업소일군들, 운전공들과 전지 한 토대를 거두었다. 그 과정에 선별작업에 필요한 물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즉시 세워졌고 예비부속품을 포함하여 정상운영에 필요한 부속품들도 빠른 기간에 마련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었다. 청진금속건설 변환기업소에서 달리는 유능한 기능공들을 불러 선별공정의 불복선으로 합하는 없었다. 그러나 책임일군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 사색을 사색을 거듭해나갔다. 그 과정에 현장정에서 혼합물을 받는 구역에서는 능히 복선주행로를 놓을 수 있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현장에서는 즉시에 해당하는 조직사업이 진행되었고 불과 며칠사이내 내연기관차의 복선주행로가 형성되었다. 60m에 달하는 복선주행로가 새로 생긴 결과 내연기관차들의 왕복주행시간은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그만큼 혼합물 운반량은 배로 증가되었고 그 결과는 더 높은 연제타입실적으로 이어졌다.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수령의 유훈관철정, 당정책을 위전을 위한 1선함호에 전투

권양공정, 내연기관차공정을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리던중 문득 내연기관차의 주행로정에 관심이 갔다. 2대의 내연기관차들이 연양공정에서 혼합물을 받아놓고도 제때에 빠지지 못하고있었던 것이다. 해당 사업소의 일군들은 기본주행로가 한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그것을 이럴수 있는 일로 여기고있었다. 물론 나무방물무에 놓인 주행로를 복선으로 합하는 없었다. 그러나 책임일군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 사색을 사색을 거듭해나갔다. 그 과정에 현장정에서 혼합물을 받는 구역에서는 능히 복선주행로를 놓을 수 있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현장에서는 즉시에 해당하는 조직사업이 진행되었고 불과 며칠사이내 내연기관차의 복선주행로가 형성되었다. 60m에 달하는 복선주행로가 새로 생긴 결과 내연기관차들의 왕복주행시간은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그만큼 혼합물 운반량은 배로 증가되었고 그 결과는 더 높은 연제타입실적으로 이어졌다.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수령의 유훈관철정, 당정책을 위전을 위한 1선함호에 전투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엔제건설의 초학도로부터 기술혁신과 창의고안, 명수들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저지도이후 1호연제건설에 참가한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이 석달도 못되는 사이에 행한 성과로 온 부름이다. 그들은 오직 사상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분발하여 중점부연제의 수심구간을 단독으로 맡아 맡겨진 전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야 합니다.》

지난 5월 중순 1호연제건설장에 도착한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격정부여 앞서서 오루로 어떤 할수 없었다. 그드그렇듯이 사업소가 지난 기간 수력발전건설에서는 수심구간을 맡아 맡겨진 전투과제를 정하고 작전과 실전을 전투적으로 진행해나가는 이들의 화신식사정신을 보다 큰 헌신과 위훈을 안아오고 있다.

대우기 얼마 안되는 인원으로 기본연제의 6개 블로크에 대한 휘틀조립과 타입을 거의 단독으로 맡아 수행하는것은 사실 힘에 부친 일이었다.

하지만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사상적 각오로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한사합들이 일떠들었다. 직장장 김철호, 작업반장인 김만복, 휘틀조립부서는 노동자들과 함께 남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전투현장을 찾았다. 그곳 기술자들과 기능공들로부터 휘틀조립과 타입에 대한 전문을 들이수있게 받았고 동시에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자체의 힘으로 찾아내도록 노동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려일었다.

한철, 정용철, 남정철동무들은 비록한 휘틀조립공들이었으나 기술문제에 대한 토의를 거듭하고 작업과정을 모방하여 수면을 거듭하면서 짧은 기간에 휘틀의 축전과 경사각을 시공의 요구대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타입시 휘틀의 변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정된 구부림과 휨을 정확히 보장하면서도 철근조립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나갔다. 타입일에 속한 광장공, 안광장, 광장동무들은 처음 다루어보는 육중한 진동다짐

기을 며칠사이내 파악하고 기술공들과 공법의 요구를 확고히 지켜나감으로써 연제타입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일군들과 노동계급의 불같은 의지와 결사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업소는 지난 6월 14일 기본연제의 6개 블로크에 대한 휘틀조립과 타입을 단독으로 맡은 때로부터 불과 한달반 동안에 근 1만 6천㎡의 타입실적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기술혁신, 창의고안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무덤이 구간에 대한 새로운 시공방법의 도입, 연제구간의 주행로연장에 의한 공사기간 단축방안...

불과 두달반만이지만 해도 연제건설경험이 전히 쌓여있고 그들이 지금에 와서는 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없이는 안될 건설자들도 되었다.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부기장장 리호동무는 말하였다.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상정력을 가지고 달려붙은 모든 것은 저절로 생기는 법입니다.》

호평받는 휘틀조립해체기

련두평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지난 7월 11일 새로운 휘틀조립해체기의 첫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설비

가 간헐하여 연제우의 임의의 장소로 손쉽게 이동할수 있을 뿐아니라 다루기도 매우 편리하였다. 휘틀조립시간은 연제기중기를 리용할 때보다 훨씬 줄어들이 평균 2시간에 한개 블로크의 휘틀해체조립작업을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여러 블로크에 대한 타입을 편수조장하게 되면서부터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종전에 비하여 주간과파제가 나섰었다.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빠른 공사속도에 발을 맞추기 위하여 연제기중기를 높이 올려서 연제우에 가능한한 짧은 시간안에 이설하여야 하였다.

지난 시기에 보은 7일간이나 걸리는 작업과제였다. 직장장 김경진, 기술공정원 한광호, 윤광일, 부직장장 김윤일 동무들은 토의를 거듭하고 구

련두평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

되었다. 그런데 혼합물운반과 동시에 휘틀해체조립에도 연제기중기가 리용되다나니 그 시간에는 콘크리트타입을 진행하지 못하고있었다.

지난 6월 중순 발전소건설장에 달려온 3대형소조 책임자 리명진동무와 소조원들인 한철철, 송성민동무들은 당 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 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달려붙었다. 문제는 휘틀해체조립작업을 연제기중기의 도움없이 진행할수 있는 설비를 만드는것이였다.

소조원들은 지난 시기 발전소건설에 리용하던 설비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연제단면이 크지 않은 2중이치형의 연제우에서 작업할수 있게 설치면적이 작으면서도 안전성이 담보되게 고정시키는것이

기본고려였다. 서로서로 지혜를 합쳐 토론회를 논쟁을 거듭하는 과정에 전망을 설치한 삼각주형식의 설비가 창안되었다. 연제콘크리트타입면에 드러난 쇠고리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적정설비 높고 정시키는 방안이 나왔다.

지혜없이 사업소적인 기술협력회가 조직되었다. 부기장 장정승동무가 소조원들을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띄워주며 기술적방조를 아낌없이 주었다. 사업소의 기술자들이 설비의 지지점을 은은히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그 제작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산업을 도와나섰다. 소조원들과 기술자들의 지혜가 합쳐져 설계가 완성된 즉시 설비조립작업의 로동자들이 이물간의 전투를 벌여 설비를 제작해냈다.

우리도 조선속도창조투쟁의 앞장에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과 공창, 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품들로 밀어내야 합니다.》

지난 6월 말 분과 초를 조개며 타입전투를 벌리던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에 새로 온 전투과제가 나섰었다.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빠른 공사속도에 발을 맞추기 위하여 연제기중기를 높이 올려서 연제우에 가능한한 짧은 시간안에 이설하여야 하였다.

지난 시기에 보은 7일간이나 걸리는 작업과제였다. 직장장 김경진, 기술공정원 한광호, 윤광일, 부직장장 김윤일 동무들은 토의를 거듭하고 구

운반 목표인 1호연제기중기의 이설시간은 더욱 단축할수 있게 되었다. 3호연제기중기이설전투에서 연제와 교환에 기중기를 사용하여 보다 과학적인 타산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6월 27일 19시에 해체를 시작한 1호연제기중기의 이설작업을 24시간도 못되어 성과적으로 끝내고 시운전을 보장함으로써 공사기간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위훈은 중기계장치의 로동계급에게만 있는것이 아니다.

공무동맹직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연제타입건설이 2배이상으로 확장되는데 맞게 비상한 사상적각오를 안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나갔다.

직장장 리용관동무는 비롯

한 일군들은 직장자체의 전기기계수리기구를 튼튼히 꾸리고 공사장전반에서 체계적인 전조기, 변압기 등 각종 전기기계를 시급히 수리보수하며 예비기대들을 조성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직장의 로동자들은 가능한 모든 예비를 동원하여 어떤 전기기계를든 마음만 먹으면 다 수리할수 있는 자체의 수리기술을 훌륭히 꾸려나갔다.

더 많은 공업용수를 보장해 야 할 문제까지 제기되었을 때에도 이들은 짧은 기간에 4대의 펌프를 새로 설치하고 물량크 저장능력을 증진된 1.3배로 확장하였다. 이와 함께 430m의 물관을 복선으로 높여 2배의 공업용수를 보장할 수 있게 매일 2 000㎡이상의 물세대를 정상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현지보도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신군청년 1호발전소 2중이치형 기본연제가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기세등々 치솟고 있다.

